



“국민은 사법부를 믿지 않는다”

이용훈 대법원장 질타... “법관·직원들 아직도 상황인식 못해”

광주 고법·지법 초도순시

“대부분의 국민은 사법부가 이미 썩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초도순시차 13일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을 방문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광주·지법 법관들과 일반직 직원을 상대로 한 훈시를 통해 강도 높은 자기 비판을 쏟아냈다. 대법원장의 일선 법원 초도순시는 지난 91년 김덕주 대법원장 이후 15년만이다. 최근 부장판사가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진 것을 감안해 볼 때 사법부 수장의 심경 토로는 ‘신뢰 위

기 사법부’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관련기사 3면> 이 대법원장은 이날 훈사에서 “사법권 행사의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이 국민에게 불신을 받는 것은 사법부의 최대 위기다. 하지만, 일부 법관과 직원들은 아직도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이 대법원장은 “국민은 지금 ‘법원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도둑놈’이라고 할 정도로 사법 불신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막말에 가까운 톤으로 심경을 토로했다. 이 대법원장은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는 만큼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뼈를 깎는 노력과 분발을 해야한다”면서 “이제 우리

의 양심과 사건처리 능력을 통해 사법부의 정령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원 부서는 문턱을 더욱 낮추고 친절한 서비스로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고, 재판은 법관들이 법정에 당사자들의 생생한 사실관계와 직원은 아직도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이 대법원장은 “국민은 지금 ‘법원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도둑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신과 관련된 구속영장발부에 대해 “한 사람에게 대한 구속영장은 그 가족에게 재앙을 가져온다”며 “따라서 인신구속에 관한 영장발부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사실 우리나라

법원만큼 적은 인원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며 “앞으로 국민에게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잘 된 것은 보여주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법원장의 훈시자리에는 광주 고법·지법 소속 법관들과 법원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광주고법 원장실에서 김원본 광주지법 교육감, 홍영기 전남지방경찰청장 등 지역 단체 및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하고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 이후 고등법원 내 소법정과 법원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위로한 뒤 모교인 광주일고를 찾아 재학생들을 격려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서울 주부들 환경농업 체험

서울지역 부녀회장 40여명이 친환경농업 현장인 전남지역 농촌을 찾았다. 부녀회장들은 13일 영암군 도포면 인덕마을 ‘우렁이농법 친환경단지’에서 직접 우렁이를 잡는 환경농업 체험을 했다. 전남도가 마련한 ‘대도시 소비자단체 초청 친환경 전남 체험행사’에 참석한 이들은 12~13일 이틀동안 도내 배·무화과·참다래 유통단지 등을 둘러봤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전경련 “J프로젝트 사업성 없다”

NPV -1,765억...법인세 50%감면 등 특단지원 필요

사업성 분석 결과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부지 3천만 평 가운데 전경련이 주도적으로 개발키로 한 해남·영암군 일대 500만 평에 카지노와 골프장을 비롯 각종 관광·레저시설이 들어서더라도 정부나 지자체의 특단의 지원 없이는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경련과 한국관광공사 기업도시 합동기획단은 13일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중간 보고서를 통해 NPV(순현재가치법)를 적용, 2007년부터 직영시설 운영기간까지 500만 평에 대한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NPV가 마이너스 1천765억9천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NPV가 0 이하면 투자 부적격이기 때문에, 전경련이 주도해 개발되는 500만 평은 ‘현재 상태로는’사업성을 확신할 수 없는 셈이다.

용역안은 이에 따라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 현물 출자 ▲내부 도로 등 각종 인프라 조성비

▲NPV(순현재가치법) = 투자안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미래의 모든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미래의 모든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뺀 값이다. 투자자의 판단기준은 NPV가 0이거나 0보다 크면 투자안 채택, 0보다 작으면 투자안 기각이다.

지원 ▲골프장이나 월드컵리지, 시니어커뮤니티 등 500만 평 내부에 들어설 각종 운영시설 공공 운영 ▲사업

기간 동안 법인세 50% 감면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들 조치가 이뤄질 경우 NPV가 322억3천400만 원으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용역안은 500만 평의 개발비전으로 ‘에코토피아(Ecotopia·미래생활에 대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이상향)’를, 개발방향으로는 ▲서남해안 관광의 허브도시 ▲에너지 자족형 친환경 생태도시 ▲새로운 미래생활을 체험하는 특화관광도시를 각각 제시했다. /홍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일보 은펜상’ 2006년 8월 수상자 김옥주 씨

‘광주일보 은펜상’ 2006년 8월 수상자로 김옥주(59·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센터 원장)씨가 선정됐다. 김 원장은 8월 16일자 ‘휴가철, 장애인에게 바다를’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동이 힘들어 마땅히 휴가 즐길 곳을 못 찾는 장애인들과 가족들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김 원장에게는 부상으로 광주일보 마크가 새겨진 은축 만년필을 드립니다.



“한미, 北 추가제재 논의 없을 것”

오늘 정상회담...작통권 환수시기 내달 연례안보협서 논의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4일 낮(한국시간 15일 새벽) 정상회담에서 지난 7월 북한 미사일 발사로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안을 이행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되, 추가적인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정상은 또 양국 현안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방침과 더불어 전시 작통권 환수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및 유사시 증원 등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환수 시기는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SCM)에서 논의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5면> 노 대통령을 수행중인 정부 고위관계자는 13일 오전 북핵 문제와 관련,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고, 9·19 성명을 조속히 이행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북제재 방안 논의여부에 대해, “두 정상이 대북 추가 제재 방안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이 모두 이행해야 할 사항으로, 한국 정부는 이를 잘 이행해왔고, 또 잘 이행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 “양국은 전작권 환수에 대한 원칙에 동의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며 “이 문제는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양국의 신뢰를 배경으로 하며,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유사시 증원 등이 재확인되는 선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수 시기를 놓고 2009년이냐, 2012년이냐 이견이 있지만, 정상회담에서 시기 문제를 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맑은 물 감사합니다”

목포시-장흥 신풍마을 보·은·결·연

“주민들 덕분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돼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청정 농산물을 구입해 은혜를 갚겠습니다.”

목포시가 오는 29일 장흥캠 통수를 앞두고 맑은 물 공급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장흥의 한 오지 마을과 보은(報恩)의 자매결연을 맺었다.

목포시는 13일 장흥군 유치면 신풍리 마을회관에서 공무원과 이 마을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풍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농협 목포농산물유통센터도 정남진장흥농협과 결연했다.

목포시와 농산물유통센터가 이들과 자매결연을 하게 된 것은 장흥캠 건설로 마을이 수몰된 신풍리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다. 장흥=김옥기기자 kykim@

국제 무대 데뷔 20주년 기념
조수미
광주공연
9월 24일(목요일) 오후 8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입장권 1062-2270-4541

후원학원 장학금 5.6천 원 시범금 지원
광주광역시 교육청 후원
남부대학교
http://www.namju.ac.kr
▶ 상담전화: 062-970-0114 ▶ 062-970-5009-4
새로운 미래를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rum.ac.kr
▶ 상담전화: 065-2051 ▶ 1,000-360-5000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epharm.co.kr

Love is the best Medicine

사람이 자연을 사랑한다지만... 오히려 자연은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사람에게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정성스레 쌓아올린 돌탑 앞에 작은 소원을 말해봅니다.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진 않지만 **소원을 비는 정성만으로도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이 국제약품이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안과 알반의약품

- ◆ **키랄라 점안액**
안과 전문의 권고
안과, 결막염, 각막염, 안압 상승, 안구 건조, 안과 수술 후 안구 건조, 안과 수술 후 안구 건조, 안과 수술 후 안구 건조
- ◆ **신도솔 류준안연**
안과 전문의 권고
안과 전문의 권고, 안과 전문의 권고, 안과 전문의 권고, 안과 전문의 권고, 안과 전문의 권고, 안과 전문의 권고, 안과 전문의 권고, 안과 전문의 권고, 안과 전문의 권고, 안과 전문의 권고
- ◆ **비어플 점안액**
안과 전문의 권고
안과 전문의 권고, 안과 전문의 권고, 안과 전문의 권고, 안과 전문의 권고, 안과 전문의 권고, 안과 전문의 권고, 안과 전문의 권고, 안과 전문의 권고, 안과 전문의 권고, 안과 전문의 권고

국제약품 전화: 090-022-2200 (주선: 4번) 청정문화 국제 센터

국제약품이 키입고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약이 아니라 사랑이 힘은. 사랑과 건강을 추구하였습니다.